통합발주 사유서

□ **사업명** : 2026 치안 ODA 몽골경찰청 디지털포렌식 기자재 지원 사업
□ **납품장소**: 몽골 울란바토르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랩

□ **통합발주 사유**

첫째, 하드웨어와 특수 장치 간 Turn-Key 연동 및 사법 증거 무결성 확보 필요

본 사업의 워크스테이션은 고사양 그래픽카드와 대용량 저장장치 등이 결합된 포렌식 전용 핵심 분석 장비로 법정 증거능력 보증을 위해서는 워크스테이션이 내장형 쓰기방지 장치, 이미지 복제기, NAS 등 주변 특수 장비와 일체형 턴키 구조로 완벽하게 연동·호환되어야 합니다(제품납품시 단품납품이 아닌 조립후 납품 필요) 이에 분리 발주 시 단순 하드웨어 성능만 맞추고 정작 포렌식 장비 간의 실시간 인식 오류나 호환성 공백이 발생하여 증거물 원본의 무결성 검증 기능에 장애가 발생 가능 합니다.

둘째, 글로벌 포렌식 솔루션 간 유기적 연계 및 사후지원 책임 일원화 필요

디지털포렌식은 증거 획득·복제·분석·복구·저장까지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특수 수사 인프라로 일부 품목을 분리 발주하여 다수 업체가 개별 납품할 경우, 소프트웨어 구동 성능 저하 및 연동 장애 발생 시 공급사·설치사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유지보수가 심각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비의 단순 납품을 넘어 단일 책임체계 기반의 일괄 구축을 통해 현지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셋째, 해외 ODA 사업의 특성상 현지 혹한기 구축 일정 및 단일 수행체계 필수

본 사업은 몽골 현지 랩실까지 장비를 안전하게 국제 운송하고, 반입·세팅 및 현지 수사관 대상 사용자 교육까지 일괄 수행해야 하는 해외 외교 사업으로 분리 발주 시 업체별 통관 및 설치 일정이 파편화되어 몽골 현지의 기후적 특성(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공사 불능)과 타이트한 국외 구축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현지 연동 장애 및 조율 지연은 곧 치안 ODA 사업 실패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 공신력 실추라는 외교적 리스크로 직결됨.

최종 결론

도입 기자재 일체는 개별 물품이 아닌 '몽골 경찰청 포렌식 랩'이라는 단일 통합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유기적 장비로 분리 발주 시 증거 무결성 훼손, 일정 관리 불능 등의 중대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특정한 기술이 필요하소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개별 분리발주 예외를 적용하여 총액 통합발주로 추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2026. 7. 3.

경 찰 청 장